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불편함과 편해지는 게 수행

편안함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너무 편해서 망해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편안함과 너무 익숙하고 편안함을 집착합니다. 편안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의지하게 되면 약해지고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몹시 약하고 까다로워요.

불편한 것을 일부러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까운 곳에 차타고 가지 말고 걸어서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배달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사세요. 음식도 자주 해서 먹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요.

불편한 곳에 가는 것, 불편한 일을 하는 것,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불편한 것을 일부로 택하세요.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간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불편해서 도인이 나왔어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경험할수록 몸은 강인해 지고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불편함과 편해지는 게 수행입니다. 사실은 저도 불편하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냥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참고로 너무 편안하면 살쪄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⑲ 통무관 금준미

만 개의 싹으로 만든 홍차

맑은 물도 정성껏 음미하면 차보다 달고, 아무리 좋은 차도 욕심에 가득차서 마시면 차의 맛을 알기 어렵습니다. 고급의 차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마음이지만 마음은 볼 수 없고 찻잎은 볼 수 있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로 차의 싹만을 골라 만든 홍차가 통무관 금준미입니다.

중국 푸젠성 통무관은 홍차의 발원지입니다. 통무관 정산소종은 수 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에서 봄에 피어오른 싹 하나에 찻잎 두세 장(1아2-3엽)으로 만든 홍차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명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무관 금준미는 봄에 처음으로 피어오른 차나무의 싹(1아)으로만 만듭니다. 수많은 차농들이 정성을 모아 1만 개의 차싹을 따야 1근 500g의 생엽이 됩니다. 1근 500g의 생엽을 차로 만들면 약 80g의 금준미가 생산됩니다. 차싹은 사계절 피어오르지만 명품 금준미는 우이산 중국 국가자연보호구역 경내에서 1년에 한 번만 채엽하는 봄 첫 싹으로 만들기에 정말 희소하고 귀한 차입니다. 그래서 10g씩 밀봉하여 극소포장으로 판매를 합니다.

홍차의 세계에서 푸젠성 우이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황강산 통무관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통무관은 정산소종의 발원지로서 유럽인의 차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드나들었는지 오늘날에도 통무관에는 유럽식 예배당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음미하고 차향을 닮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아니었지요. 홍차무역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광저우나 상하이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육로로 푸 성에 도달했습니다.



통무관 금준미

18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유럽에 차를 파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인은 홍차에 열광하였지만, 정작 차에 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홍차나무, 녹차나무가 따로 있는 줄 알 정도로 차에 무지했습니다. 영국은 차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을 질투했고, 중국은 차나무 종자와 제다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국가기밀로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차 재배지의 외국인 출입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지고 난징조약을 맺어 홍콩이 영국령이 되고 5개 항구가 열리면서 외국인들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내륙의 차 재배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샹여우쩡처, 샤여우뚜이처(상유정책上有政策, 하유대책下有對-국가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라는 중국유행어가 있는데, 이 방법은 청말 무너져가는 혼란시대에도 통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스코트랜드의 식물학자인 로버트 포춘을 중국 푸젠성에 산업스파이로 파견하였습니다. '차나무 종자와 차 재배 기술을 훔쳐오라!' 로버트 포춘은 1839년에서 1860년 사이 네 차례나 중국에 잠입하였습니다. 청나라 관료의 복장에 변발을 하고 서툰 중국어로 푸 성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차 정보를 훔치고 1851년 2월 마침내 2000그루의 차 묘목과 1만7천 개의 차 종자를 밀반출하는데 성공하였고 6명의 제다기술자까지 포섭하여 유유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 기념사진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로버트 포춘을 중앙에 두고 중국인 제다기술자들이 양옆에 서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득의양양한 포춘의 얼굴과는 달리 제다기술자들은 어찌 그리 처량한지요. 중국에서의 삶도 녹녹치 않았을 차농의 고단한 삶이 포춘을 믿고 밀항한 후에는 나아졌을까요? 포춘은 영국으로 금의환향하여 명예와 부를 얻고 여러 권의 책도 저술했지만 그를 믿고 인도로 간 중국인 제다기술자의 뒷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물사냥꾼, 차도둑으로 불리는 로버트 포춘은 홍차의 역사를 바꾼 장본인입니다. 중국 차나무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다즐링에 번식되었고 또 아삼종 차나무가 발견되는 등 영국의 홍차 산업은 플랜테이션화, 기계화되어 양적으로 중국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홍차의 맛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찻잎을 기계로 으깨고(crush) 찢고(tear) 휘마는(curl) CTC 공법에 여러 향을 첨가한 플레이버드 티(가향홍차)가 대중화 됩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차를 마시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화롯불을 지피고, 재빨리 덧문을 닫고/ 커튼을 드리우고, 소파는 둥글게 돌려놓아야지/ 주전자에서는 보글보글 힘찬 소리가 새어 나오고/ 하얀 김이 기둥처럼 솟구쳐 오르니/ 저마다 취하지 않고도 기분이 좋아지는/ 차 한 잔씩을 앞에 두면/ 이윽고 평화로운 저녁이 시작되리라." (〈홍차애호가의 보물상자〉 p.8)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 차나무를 심었다 해도 당시에 10년, 20년 된 차나무의 찻잎은 맛이 싱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는 심산유곡의 고산운(高山韻)과 이름 모를 수많은 꽃과 약초와 숲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 찻잎 자체가 부드럽고 향기롭고 신선합니다. 차는 색, 향, 미, 운으로 품평하는데 갓 심은 차나무의 찻잎은 고차수와 노총의 기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금준미(金骏眉)를 마시는 호사를 누려봅니다. 영국의 홍차처럼 떠들썩하게 마셔서는 안 되고 선차(禪茶)처럼 고요히 몰입해야 합니다. 금처럼 귀하다 하여 금이라 하고, 준마처럼 세계에 널리 퍼져라 해서 준이라 하고, 살짝 휜 차싹이 긴 속눈썹처럼 보여서 눈썹 '미' 자를 써서 금준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찻잎 3g을 85℃ 120ml의 물에 짧게 우립니다. 홍차이지만 너무 연한 싹으로 만들어서 수색이 붉지 않고 반짝이는 오렌지색입니다. 찻잔 위로 금권(金圈)이라 부르는 영롱한 황금띠가 올라옵니다. 정산소종을 실크로 걸러낸 듯 더욱 섬세하고 달콤한 향기가 온 몸에 번집니다. 차는 다 마셨는데 향기는 여전히 남아 아련하게 기억의 저편을 소환합니다.

〈잇다it茶 대표〉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종공고

• 사찰명 : 백양사
• 주 지 : 도법 (속명 : 정동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오양골길 183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대한불교 조계선종 총무원장 법하